

2019년



해외출장 가이드

쿠웨이트 출장자료

【 목 차 】

I. 쿠웨이트 체류정보	01
1. 체류 참고사항	1
2. 주요 명소	5
3. 주요 연락처	10
II. 쿠웨이트 안내	11
1. 국가 일반 개요	11
2. 정치와 사회 동향	12
3. 한국과 주요 이슈	14
4.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15
5. 주요 경제지표 동향	20
6. 한국과 교역동향	21
7. 투자 환경	26
8. 투자 입지 여건	29
III. 비즈니스 참고사항	31
1. 역사 및 문화적 금기사항	31
2. 비즈니스 에티켓	31
3. 상담 및 거래시 유의사항	33



<쿠웨이트지도>





1. 쿠웨이트 체류정보

1. 체류 참고사항

기후 특성

- 쿠웨이트 기후는 고온 건조한 열대성 사막기후로 3월말부터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한여름에는 한낮 최고 기온이 55도까지 상승
- 7월과 8월에는 최고 기온이 55도 이상 올라가고, 겨울철인 1월에는 최저 기온이 5도를 기록하며, 겨울철에는 비가 내리기도 함

계절별 기후

- 3월~4월은 봄철에 해당하며 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시기로 기온은 26~33도를 기록하며 모래 바람이 자주 발생
- 5월~10월은 여름철에 해당하며 이 기간 동안은 한낮 최고온도가 50도 이상을 기록
- 11월~2월은 겨울철에 해당하며 이 기간은 온도가 낮아져 기온이 0~15도를 기록하며 비가 내림

복장

- 쿠웨이트는 11월 ~ 2월은 제외하고는 한국의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일교차가 크지 않으나, 실내에서는 냉방시설을 가동하기 때문에 얇은 긴팔의 복장 필요

입국(방문)비자

- 공항 도착 후 출입국 심사 전 공항에서 입국(방문) 비자를 발급
- 비자발급 소요비용 : 무료

방문비자 발급절차

1) 입국비자 사전신청

- 쿠웨이트 입국 전 내무부 웹사이트(http://evisa.moi.gov.kw/evisa/home_e.do)에 접속하여 여권 번호 등 입력하여 비자 신청
 - ※ E-visa 신청시 여권정보(발급, 만료일 등) 등 기재, 여권사본(스캔) 첨부 필요
- 신청시 기재한 이메일을 통해 승인 여부 확인
 - ※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입국 필요 1개월 경과시 효력이 상실되어 재신청 필요
 - ※ E-visa를 사전에 발급 받더라도 쿠웨이트 공항에 도착하면 도착비자(Arrival Visa)를 다시 받아야함(E-Visa만 가지고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없음)

2) 쿠웨이트 국제공항 도착후, 도착층 비자발급 창구(Visa Issuing)에서 입국(방문) 시증 발급 받음

[도착층에서 우측으로 직진]



[비자 발급 창구입구]





- 3) 접수창구에 비자 신청서류, 번호표, 여권, 사증(VISA) 신청서를 제출
 - 적용대상 : 관광비자(Tourist Visa, 최대 3개월 체류가능, 근로활동 불가)

구분	내 용
E-Visa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E-Visa 승인시 승인번호가 기재된 승인증을 출력(한국에서) - 쿠웨이트 공항에 도착 후 비자발급 사무소에서 E-visa 이용자 전용 대기(waiting) 번호표를 선택하여 승인증을 제시하고 비자 수령 (기존 제도에 비해 대기시간 단축 가능) - 비자발급 창구(5~6번)에서 발급 받음
E-Visa 미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비자발급 창구(Visa Issuing)에 도착한 즉시 번호표를 발급받은 후, 비자신청서류를 작성 - 비자발급 창구(1~4번) ※ 번호표를 늦게 받을 경우, 장시간 대기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자 발급대 도착시, 즉시 번호표를 수령해야함.

4) 창구에서 사증 접수가 되면 동시에 여권에 입국 도장을 찍어줌

5) 비자 발급이 완료되면 아래층(1층)으로 내려와 입국심사대 통과

- 공항에서 발급하는 비자는 한국인을 포함한 52개 국가 국민에 한해 최대 3개월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방문 사증임.
- 'Visa Issuing'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후, 별도의 입국심사 없이 수화물을 찾아서 공항 출구로 나올 수 있음

※ 수화물을 찾으신 후 입국장으로 나올 때,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원칙적으로 돼지고기와 주류의 반입이 불가능함



[쿠웨이트 공항 입국장]



□ 시내교통

- 외국인은 대중교통 이용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수단임.
 - 공항 ↔ 쿠웨이트 시티 요금 : 약 8~9 KWD (공항택시 기준)
 - 쿠웨이트 시티내 이동시 : 약 3 KWD (일반택시 기준)
- 버스는 대중교통으로 운행 중이나 노선 및 운행시간이 제한되어 외국인 방문객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 제3국 노동자들이 이용

□ 통신 및 전화제도

- 국내 전화는 무료이나, 국제전화는 통화 비용이 고가
- 한국 호출 국제전화 (분당 2달러 정도)
 - (서울의 경우) : 00822-전화번호
 - (휴대전화) : 0082-10-XXXX-XXXX
- 현지 이동통신사(Zain, Ooredoo, Viva)에서 USIM칩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여권과 방문비자를 제출해야하며, 최소 3KD부터 충전이 가능함

□ 가전제품 사용시스템

- 전원 : 240V, 50Hz (참고 : 한국 220V, 60Hz)
- TV 및 VIDEO 방식 : PAL (참고 : 한국 NTSC 방식)

□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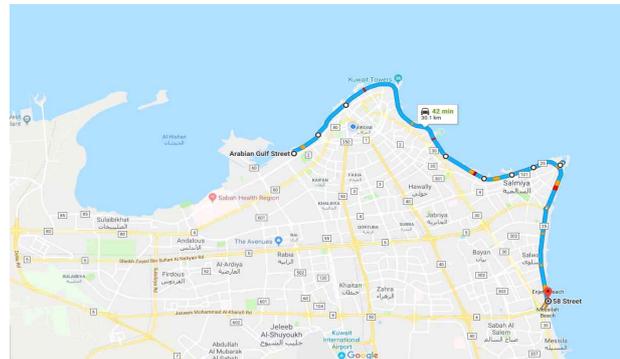
종 류	식당명	연락처	소재지
한 식	고려관	2245-2740	Carlton Tower 호텔내
한 식	한국관	2563-4765	Hyatt 호텔내
일 식	Sakura	2474-2000	Crowne Plaza 호텔내
일 식	KEI	2245-5550	Marriott 호텔내
아랍식	Mais Al-Ghanim	2246-0456	Gulf Road 위치



2. 주요 명소

▣ Arabian Gulf Road

- 걸프만 해안선을 따라 약 21Km에 달하는 6차선 도로로 쿠웨이트의 거의 모든 주요 간선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해안도로



[걸프로드 노선]

▣ Kuwait Tower

- 쿠웨이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형물로서 1979년에 건설되었으며, 3개의 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개는 물탱크로서 133만 갤런의 물을 담고 있으며, 다른 1개는 높이 123m의 전망대로 시내전역 조망 가능
- 나머지 1개는 96개의 Spotlight가 설치되어 다른 2개의 조형물을 비추춤으로써 Kuwait Tower 전체 조형미를 강조





□ Grand Mosque

- 쿠웨이트 제1의 이슬람사원으로서 시내에 위치(1986년 완공)
- 지름 26m, 높이 43m의 돔이 있는 주 예배실의 규모는 5,300m² 로서 5,000여명의 남성과 550명의 여성을 동시에 수용가능
- 전통 이슬람 건축양식과 현대식 기술이 조화를 이뤄 아름답고 우아하며, 건물의 모든 벽을 자연 대리석을 사용하여 그 위용을 자랑



□ Tareq Rajab Museum

- Tareq Sayed Rajab이 1980년에 완공한 아랍어 서체박물관으로 1000여 점의 아랍어 서체 예술품이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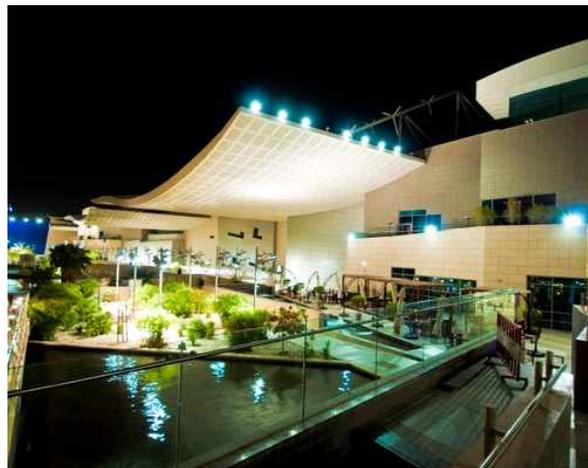
Failaka Island

- 쿠웨이트 북방 20Km 지점에 있는 길이 12Km, 넓이 6Km²의 작은 섬
- 구석기시대 유적 및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유적이 출토되는 등 현재 쿠웨이트인이 유입된 17세기 이전의 역사 유적이 담긴 섬



Avenue Mall

- 쿠웨이트에서 가장 큰 쇼핑몰로 쇼핑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복합 문화공간





□ Al-Shaheed Park

- 쿠웨이트 시티에 위치한 200,000m² 면적의 공원으로 정원 및 호수와 같은 녹지와 2개의 박물관, 쿠웨이트 전통 가옥 등을 조성하여 역사, 문화, 환경을 융합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함



□ Boulevard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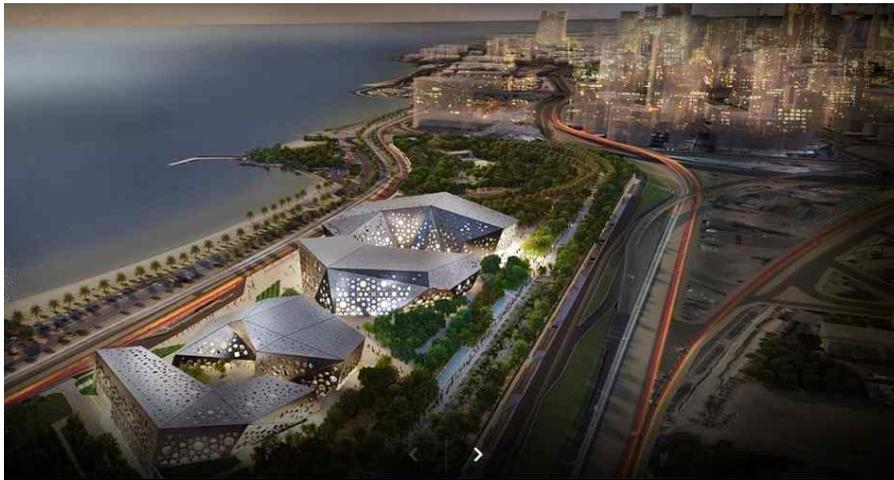
- 번화가인 Salmiya와 5th Ring Road 사이에 위치한 면적 353,000m²의 공원
- 공원 중심에 대형 호수와 녹지가 특징으로, 주변에 쇼핑몰을 조성하여 야외 활동과 쇼핑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 공간임





□ Jaber Cultural Centre

- 쿠웨이트 오페라 하우스로 알려진 Sheikh Jaber Al-Ahmad Cultural Centre(JACC)는 면적은 214,000m²로 중동에서 가장 큰 문화-오페라 센터
- 아라비안 걸프 로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음악 콘서트, 영화, 연극, 워크T숍 등을 개최하고 있음



□ Al-Khiran Resort

- Al-Khiran Resort는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 국경 근처의 Khiran District에 조성된 여가공간
- 깨끗한 바다를 발치에 두고 있는 별장, 스튜디오, 빌라 등을 렌트하여 주말을 즐기는 곳으로 알려져 있음





3. 주요 연락처

쿠웨이트 무역관

- 주소 : JASE Tower, 5th Floor, Block 2, Arabian Gulf Rd., Sharq, Kuwait
- 전화 : 965-2243-6933, 2243-6939
- 팩스 : 965-2243-6948
- 이메일 : kuwaitkbc@gmail.com
- 황현규 관장(965-6665-7379), 박성우 과장(965-6656-1862)

쿠웨이트 한국대사관

- 주소 : P.O Box 4272, Safat 13043 Kuwait
- 전화 : 965-2537-8621~5
- 팩스 : 965-2537-8628~9



II. 쿠웨이트 안내

1. 국가 개요

□ 일반현황

국명 통칭	쿠웨이트(State of Kuwait)
공식 국명	The State of Kuwait (아랍어: Dawlat al Kuwayt / Al Kuwayt)
위치	북위 28~30도, 동경 46~48도이며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동쪽은 걸프만을 두고 있음
면적	17,818평방km(우리나라의 경상북도 면적)
기후	고온건조 사막기후(연평균 기온: 33°C, 6월~9월: 28~50°C)
수도	쿠웨이트 시(Kuwait City)
인구	457만 명 (2018년 6월 기준) 쿠웨이트인: 138만 명(30%), 외국인: 319만 명(70%)
주요도시	Kuwait City, Farwaniya, Hawalli, Ahmadi, Jahra, Mubarak al-Kabeer
민족(종족)	쿠웨이트인 30.3%, 아랍인 23.7%, 서남아인 37%, 이란인 1%, 기타 8%
언어	공용어: 아랍어(영어 상용)
종교	이슬람교 76%(순니파 70%, 시아파 30%), 기타(기독교, 힌두교) 24%
건국일	1961년 6월 19일 영국 보호령에서 독립 (독립기념일: 2월 25일)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국가원수	Sheikh Sabah Al-Ahmed Al-Jabr Al-Sabah (제 15대 국왕)
입법부	단원제 국회(직선 의원 50명 + 비의원 각료 15명, 의원 임기 4년)
정당	정당 구성은 불허
정부성향	비동맹



□ 쿠웨이트 略史

- 현재 쿠웨이트 지역은 16세기 이전부터 오스만(Ottoman)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으며, 18세기 초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등의 지역에 거주하던 아마이자(Amaiza)족이 현재 쿠웨이트 지역으로 이주하여 쿠웨이트 민족의 주류를 형성(1756년 쿠웨이트 초대 국왕인 사바흐(Sabah)왕이 즉위)
- 초기 이주자들이 황무지를 개척하여 KOUT라는 명칭의 정착 요새를 구축하였는데, KOUT라는 명칭에서 현재 쿠웨이트라는 국명이 유래하였으며 초기 이주자들은 진주잡이 등 어업과 인도와의 해상 교역에 종사
- 1897년 무바라크(Mubark)왕은 오스만(Ottoman) 제국의 쿠웨이트 합병을 피하기 위해 영국에 보호를 요청하였고, 영국은 지중해와 인도간의 무역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1899년 쿠웨이트와 보호조약 체결
- 1938년 최초로 쿠웨이트 남부의 부르간(Burgan) 지역에서 유전지대가 발견되었고, 1946년 최초로 원유를 수출하면서 중동의 산유국으로 등장
- 1961년 쿠웨이트는 영국과 체결하였던 보호조약을 폐기하고 외교권을 회복하여 주권 국가로 독립
-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침공으로 국권을 상실하고 이라크에 일시적으로 점령 당하였으나, 유엔(UN) 결의에 따라 구성된 미국 등 27개국 연합군의 도움으로 1991년 2월 26일 해방됨

2. 정치와 사회 동향

□ 정치

- 쿠웨이트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인 위치, 걸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보유, 세계 5위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인접국으로부터 많은 도전에 직면



- 쿠웨이트는 1961년 독립 후 비동맹 중립외교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친서방 정책을 견지하고 있고, 1981년 5월 사우디,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카타르 등과 걸프협력회의(GCC)를 창설하여 강대국의 개입을 배제한 자주적인 지역 집단안보체제를 구축
- 1990년 이라크 침공 후 기존 영국 등 유럽 중심에서 미국에 대한 정치, 경제, 안보 측면에서 의존도가 크게 증가
- 쿠웨이트는 입헌군주제 국가로 국왕이 최고 권력 및 통치자로 자베르(Jaber)가문과 살렘(Salem)가문에서 번갈아 국왕에 취임
- 행정부는 18개 부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부처별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왕이 임명

□ 경제

- 원유 및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형성
 - 쿠웨이트 국내총생산(GDP)의 50% 이상, 재정수입의 87%, 전체 수출의 94%가 원유 및 석유화학중간재 수출이 차지
 - 쿠웨이트 원유 매장량은 약 1,015억 배럴로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7.3%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5위 산유국으로 일일 최대 원유 생산량 300만 배럴 규모
-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농축산품과 생활 소비재 등 공산품과 기계류 등 자본재 수요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
- 걸프 협력회의(GCC)의 경제통합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경제통합을 통한 지역내 경제적 위상 강화를 적극 추진



□ 사회

- 쿠웨이트는 이슬람 국가로서 이슬람교 교리에 따른 사회관습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음주, 도박, 이자수취가 금지
- 쿠웨이트는 안정적인 정부 재정을 바탕으로 무상교육 및 무상 의료제도 시행 및 그 외 각종 보조금 지급 등 수준 높은 복지제도 시행
- 자국민은 1등 국민(참정권 보유)과 2등 국민(귀화 후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민으로 참정권 미 보유)으로 구분하고 있고, 약 12만 명의 아랍계 무국적자(Bedoon)와 약 2백 70만 명의 외국인이 혼재하고 있어 사회의 이질감이 매우 큼
- 쿠웨이트 사회는 서구식 자유주의 확대를 추구하고자 하는 세력과 이슬람 교리의 엄격한 적용을 주장하는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병존

3. 한국과의 주요 이슈

□ 한-쿠웨이트 관계

체결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쿠웨이트 정식수교(1979년 6월 11일) ○ 항공협정(1982년) ○ 문화협정(1983년) ○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증진협정(1984년) ○ 항공운수 면세약정(1985년) ○ 이중과세방지협약(2000년) ○ SOFA 협정(2003년) ○ 투자보장 협정(2004년) ○ 경제기술협력협정(2005년) ○ 형사사법공조조약(2007년) ○ 범죄인 인도조약(2007년) ○ 수형자 이송조약(2011년) ○ 외교관, 관용, 특별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	---



	<p>관한 협정(2015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2015년) ○ 국비환자 송출 양해각서(2016년) ○ 의사 연수 시행 합의서 (2016년)
교역규모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US\$ 12.5억 ○ 수입: US\$ 127.9억
교역품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승용차, 공기조절기, 철강관, 밸브, 전선 등 ○ 수입: 원유, 나프타, LPG, 선박, 동괴 및 스크랩 등
투자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기업의 對 쿠웨이트 투자는 쿠웨이트와 한국의 경제 및 산업 구조의 격차가 심해 생산 및 유통 등 실물시장에 직접 투자는 미미한 상황이며, 한국 기업의 투자는 건설 및 플랜트 관련 기업의 법인 설립 및 운영 관련 투자 ○ 쿠웨이트의 對 한국 투자는 실물 투자가 아닌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이며,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는 쿠웨이트 국부펀드, 사모펀드 등이 국제 투자은행을 통해 한국 금융 시장에 간접 투자
교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교민수는 일시 체류자를 포함하여 약 2,400명(2018년 6월 기준) (장기 거주 교민 약 400명, 건설 프로젝트 관련 단기 체류자 약 2,000명)

4.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 경제 동향

- 일시적인 유가 상승에 힘입어 양호한 경제성장률 달성
 - 2017년 대비 나아진 유가사정으로 인하여 쿠웨이트 석유부문 GDP성장률은 전년대비 증가한 3.0%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비석유부문의 GDP는 국가개발계획 New Kuwait 2035에 따른 인프라 건설 확대와 소비시장의 호조세를 바탕으로 2.8% 성장률 달성
 - 석유부문과 비석유부문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통하여 2018년 경제성장률은 2.9%를 기록



분야별 GDP 성장률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망)
석유부문	-2.1	-1.7	3.9	-7.2	3.0	1.5
비석유부문	4.8	0.4	1.6	2.2	2.8	3.0

* 자료원: NBK Kuwait Economic Brief January 2019

- 2018/2019년 회계연도 재정적자 감소, 재정수입 증가 전망
 - 지속적인 저유가로 2014/2015회계연도에는 15년 만에 재정적자를 기록함. 재정적자를 타파하기 위해 재정지출의 70%를 차지하는 석유 보조금과 같은 복지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
 - 유가가 60불대를 유지하며 쿠웨이트 재무부는 2018/19 회계연도 예산 수립 기준 유가를 전년대비 인상한 50불(배럴 당)으로 편성함. 재정적자는 전년대비 37% 감소한 50억KD로 전망되며, 재정수입은 150KD로 13.7% 증가 전망

 - 재정·국외자산을 비축하여 인프라 프로젝트 등 공공 지출 증대
 - 과거 유가수익의 이전을 통해 비축된 5천억달러 이상 국부펀드 미래세대 기금(FGF: Future Generation Fund)*, 매년 이라크로부터 지급받는 50~60억 달러 전쟁배상금을 바탕으로 대규모 재정·국외자산을 비축하여 인프라 프로젝트 등 공공 지출 증대로 성장 둔화 해결의 여지 제공
 - 정부의 보수적 예산수립 및 운영에 힘입어 재정 건정성이 회복되고 있어 국가개발계획에 따른 세부 프로젝트가 당초 일정대로 순항할 것으로 예상
- * FGF(국부펀드 미래세대기금) : 매년 정부예산 편성시 10% 내외의 예산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 조성한 후손들을 위한 미래발전기금. New Kuwait 2035 Plan의 주요 프로젝트 추진비용의 일정비율은 정부 예산과 병행하여 집행함
-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 쿠웨이트 정부는 고용창출과 자국 인력양성을 위해 2001년 4월 외국인 직접 투자법(Foreign Direct Investment Law)을 제정하여 2003년 2월부터 시행
 - 2014년 KDIPA(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 쿠웨이트 투자진흥청) 설립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적극 활성화 추진
 - 외국인 투자 촉진 목적으로 2013년 외국인 직접 투자법을 개정



- 2020년까지 외국인 투자 금액 203억 달러 달성, 자국민 대상 일자리 1,000개 이상 창출, 비석유 분야 GDP 증대를 목표로 함

기존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법인 설립 시 외국인 투자 지분을 최대 49%로 제한 ▪ 기존 외국인 투자법이 존재하였으나 외국 투자기업에 불리하게 법규를 소급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기업 100% 단독투자 허용 ▪ 법인 소득세 15% 인하 및 최대 10년간 면제 ▪ 회사 설립에 필요한 과실 송금 완전 보장 ▪ 투자 기반 시설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2001년 기준	2013년 기준

- 원유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쿠웨이트 북부 유전 개발을 추진
 - 쿠웨이트 정부 및 국영석유회사(KOC, Kuwait Oil Company)는 70억 달러 규모의 쿠웨이트 북부 유전개발 계획(일명:Kuwait Project)을 추진하고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외국 기업의(컨소시엄 형태) 개발 참여를 검토
- 민영화와 공공요금 현실화를 통한 적극적인 경제개혁 시행
 - 국영 항공사, 철도, 통신 분야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적극 추진. 2016년 4월 쿠웨이트 증권거래소는 공공기관의 첫 민영화 사례임.
 - 재정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던 휘발유 보조금을 인하하고 휘발유 가격을 42~83%까지 인상하고, 전기·수도세를 인상하는 등 정부 보조금 삭감 등을 통해 공공요금 현실화를 통한 재정수입 다변화를 추진
- 2017년 11월 New Tender Law 공표
 - 쿠웨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현지 기업과 에이전트 계약을 맺는 것이 필수였으나, 현지 에이전트 없이 외국기업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
 -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외국기업은 공급되는 프로젝트 기자재 중 30%는 현지 시장에서 조달해야함을 명시
 - 이외에도 이전에는 계약금액이 5000KD 이상 경우 CTC(Central Tender Committee)를 통해 공표되었으나, 75,000KD 이상 계약일 경우 CTC로 발표하도록 변경



- 주요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구 신설
 - KPC(Kuwait Petroleum Corporation)은 업무분담 및 주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18억원을 투자하여 KIPIC(Kuwait Integrated Petroleum Industries Company)를 2016년 11월에 신설
 - KIPIC은 정유, 석유화학제품 생산 및 Al-Zour 복합발전소의 LNG 수입 운영을 담당하게 됨

□ 전망

- 2019년 GDP 성장률 2.2% 전망
 - 현지 민간소비가 2017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2018년 회복세를 보였으며, 금년에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유가 전망이 쉽지 않은 석유부문 보다는, New Kuwait 2035 기반 공공부문 프로젝트 관련 정부 지출과 함께 비석유부문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민간소비 증가에 힘입은 비석유분야 성장을 중심으로 2019년 2.2%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됨
- 'New Kuwait 2035'에 따라 예정대로 프로젝트 추진
 -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제 5차 경제개발 계획(2015-2019)이 예정대로 진행됨에 따라 정부 지출과 투자에 의한 민간경제의 활성화가 예상
 - New Kuwait 2035 계획의 성공 여부가 향후 경제성장과 중동지역에서의 국가 위상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신용평가기관 S&P는 국가신용등급 AA를 부여하였으며, 무디스는 신용등급 Aa2를 유지하며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18.05.02 피치(Fitch)는 국가신용등급 AA,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
 - 다른 산유국과 비교해서 낮은 균형재정유가, 쿠웨이트 국부펀드의 안정성, 낮은 정부부채로 인해 재정적자 악화 완충이 가능하다고 밝힘



<중동 주요국 신용등급 현황>

국가명	S&P	Moody's	Fitch
사우디아라비아	A-	A1	A+
바레인	B+	B1 ↓	BB+ ↓
이집트	B- ↑	B3	B ↑
이라크	B-	Caa1	B-
이스라엘	A+ ↑	A1	A+
요르단	B+	B1	
쿠웨이트	AA	Aa2	AA
레바논	B-	B3	B-
오만	BB	Baa2 ↓	BBB- ↓
카타르	AA- ↓	Aa3 ↓	AA- ↓
터키	BB ↓	Ba1 ↓	BB+
UAE	AA	Aa2	AA
한국	AA	Aa2	AA-

* 자료원 :Trade Rating('18.2월)

- 다만, 쿠웨이트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 갈등의 재발 가능성은 상존함



5. 주요 경제지표 동향

□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구	백만 명	4.04	4.24	4.29	4.41	4.53	4.66
명목 GDP	십억 달러	162.63	114.57	110.91	120.13	133.00	134.00
1인당 명목GDP	달러	40,278	27,036	26,004	27,318	29,360	28,755
실질성장률	%	0.62	-1.00	2.20	-2.53	1.28	3.85
실업률	%	1.72	1.13	1.13	1.13	1.13	N/A
소비자물가상승률	%	3.13	3.68	3.48	1.51	2.50	3.70
재정수지(GDP대비)	%	22.36	5.59	0.63	3.96	7.07	6.16
총수출	백만 달러	103,300	55,100	46,300	54,000	64,500	64,900
(對韓 수출)	"	16,892	8,973	7,262	9,593	12,790	N/A
총수입	"	27,300	31,900	30,800	33,500	32,100	33,100
(對韓 수입)	"	1,975	925	1,406	1,162	1,250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76,000	23,200	15,500	20,500	29,400	31,800
경상수지	"	53,790	8,492	655	7,578	N/A	N/A
환율(연평균)	현지국/US\$	0.293	0.303	0.306	0.302	0.298	0.294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10,468	5,407	-6,258	N/A	N/A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1,798	282	294	131	N/A	N/A

* 자료원 : IMF, EIU, UNCTAD, 쿠웨이트 통계청(CSB), NBK(National Bank of Kuwait) 등



□ 쿠웨이트 시장특성

- 대외 의존도가 높은 전형적인 소비 시장
 - 생산기반 부재로 일반 생필품에서 자본재에 이르기까지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 보유
- 소비계층의 극단적인 양극화
 - 쿠웨이트 소비 시장은 고소득 계층인 소수의 쿠웨이트인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제 3국인으로 소비 시장이 양극화된 시장
- 중계무역 기지 역할
 - 쿠웨이트는 지정학적으로 걸프 만 최북단에 위치하여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 인근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중계지 역할 수행
 - ※ 이라크 전쟁 전 쿠웨이트 전체 무역의 30% 이상은 중계무역이 차지

6.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대 쿠웨이트 수출 동향

- 2018년 對쿠웨이트 수출금액 약 12.5억 달러로 전년대비 7.5% 증가함
- 프로젝트 공정 진도율에 따른 플랜트 기자재 수출 증가
 - 주요 수출 품목은 가열난방기, 원동기, 철강선, 배전 부분품, 중후품 등으로 정유플랜트 및 인프라 공사 등에 필요한 플랜트 기자재 제품이 주력 수출품목으로 부상
- 소비시장의 호조로 일부 소비재 수출 성장세
 - 전자제품, 유아용품, 주방용품 등 일부 소비재 수출이 전년대비 큰 성장세
 - 2018년 화장품 수출액은 2.8백만 달러로 이는 전년 동기대비 36.4%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



호조품목과 부진품목

(단위: 백만불, %)

	품목명	금액	증감률
호조	전선	111.3	38.3
	가열난방기	84.2	30514.1
	원동기	6.8	1215.5
	배전부분품	36.5	428.7
	기타산업기계	42.9	254.1
부진	승용차	145.7	-10.6
	공기조절기	48.9	-50.2
	화학기계	21.39	-40.5
	계측기	8.4	-63.2
	컬러TV	3.6	-64.5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MTI 4단위 기준



2018년 對 쿠웨이트 수출

(단위: 백만불, %)

순위	품목명	'17년		'18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162.6	-17.3	1253.2	7.8
1	승용차	163.1	-21.2	145.7	-10.6
2	전선	80.4	516.4	111.3	38.3
3	가열난방기	0.3	-91.0	84.2	30,514.1
4	철구조물	37.1	-43.7	71.0	91.4
5	철강관	86.3	165.1	49.2	-43.0
6	공기조절기	98.4	-37.2	49.0	-50.2
7	밸브	70.6	14.9	46.0	-34.8
8	배전 및 제어기	12.2	-48.3	44.5	265.9
9	기타산업기계	12.1	-74.2	42.9	254.1
10	중후판	8.5	337.0	41.0	384.9
11	배전 부분품	6.9	-16.6	36.5	428.7
12	펌프	35.7	-28.9	34.1	-4.6
13	변압기	22.7	215.1	31.3	37.8
14	접속기 및 차단기	31.7	134.9	27.9	-11.9
15	화학기계	36.0	-29.4	21.4	-40.5
16	주단강	31.9	-27.4	17.1	-46.3
17	분석시험기	4.6	83.8	16.5	259.6
18	기타플라스틱제품	10.4	-16.8	16.2	55.0
19	열연강관	3.9	86.4	15.2	286.0
20	타이어	14.0	-35.2	14.1	0.8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MTI 4단위 기준



□ 대 쿠웨이트 수입 동향

- 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제품 수입액 급증
 - 2017년까지 이어진 저유가로 석유제품 수입액이 감소세였으나,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2018년 석유제품 수입액이 급증
 - * 2018년 수입액 : 원유(11,544백만, △38.4), 나프타(1,057.9백만, △21.3), LPG(158.3백만, △29.8)
- 산업용 원자재 중 기타정밀 화학제품, 합성수지 등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 동피 및 스크랩, 알루미늄피 및 스크랩 수입 감소

2018년 對쿠웨이트 수입

(단위: 백만불, %)

순위	품목명	'17년		'18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전체	9593.96	32.1	12789.5	33.3
1	원유	8339.10	30.1	11544.8	38.4
2	나프타	872.11	45.5	1057.9	21.3
3	LPG	225.57	-0.3	158.4	-29.8
4	기타정밀화학제품	7.50	317.9	11.3	50.8
5	동피및스크랩	16.52	173.1	6.9	-58.2
6	알루미늄피및스크랩	5.42	-22.8	4.2	-22.1
7	기타금속광물	0.00	-100.0	2.9	0.0
8	건설중장비	0.03	-9.1	1.0	3,544.4
9	철구조물	0.00	0.0	0.9	0.0
10	합성수지	0.37	42.9	0.4	2.4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MTI 4단위 기준



□ 쿠웨이트 주요 프로젝트 수주 동향

○ 국내기업의 최근 수주 동향

- 2013년~2018년까지 국내 기업들은 약 173억 달러의 32개 프로젝트를 수주함. 2017년 4월에는 LH가 3천9백만 달러 규모의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 마스터 플랜 및 실시설계를 수주한 바가 있음

<우리 기업이 수주한 주요 프로젝트>

업체명	프로젝트명	발주처	계약금액 (백만달러)	계약 시기
대림산업	Az-Zour Refinery Project PKG 4	KNPC	1,184	'08.7
	Sulfur Handling Facilities	KNPC	513	'13.5
대우건설	Clean Fuel Project(CFP) MAB PKG 2	KNPC	1,135	'14.04
	신규 정유공장 PKG	KNPC	2,023	'15.7
두산중공업	Sabiya 담수 공장	MEW	372	'04.5
	Doha RO 담수설비	MEW	390	'16.5
토지주택공사	South Saad Alabdullah Smart City 마스터플랜	PAHW	38	'17.4
현대ENG	Az-zour LNG 수입 터미널	KNPC	1,395	'16.3
현대건설	MAA 정유공장 석유 부두 공사	KNPC	324	'00.9
	North Shuaiba C-Generation(Power&Distillation)	MEW	713	'07.6
	Boubyan Port Phase 1, 2	MPW	1,133	'10.7
	Jaber Causeway	MPW	2,055	'12.11
현대중공업	Sabiya CCGT Power Plant	MEW	1,379	'09.9
	North Az-Zour IWPP	KAPP	973	'13.12
GS건설	South East Soil Remediation Project	KOC	66	'12.2
	Doha Link	MPW	572	'14.10
SK건설	Az-Zour Refinery Project PKG 2	KNPC	2,062	'08.7
	Clean Fuel Project(CFP) PKG 1	KNPC	1,615	'14.4

* 자료원 : 해외건설협회

○ New Tender Law 시행에 따른 프로젝트 수주 전망

- New Tender Law에 따르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 기업은 진행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 까지 새로운 프로젝트 수주가 불가능함
- 쿠웨이트에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현재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으로 신 프로젝트 수주 참여가 불가. 향후 국내 기업의 신 프로젝트 수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7. 투자 환경

□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 일반 투자환경

- 쿠웨이트는 풍부한 오일 머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청 (KDIPA, 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이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 자본 부족에 따른 외국 자본의 조달의 필요성 보다는 기술 도입, 우수한 해외 인력유치와 산업다각화가 목적
- 쿠웨이트 외국인 투자청은 국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승인을 하고 있음
- 투자국가 다변화 양상
 - 과거 쿠웨이트에 대한 주요 투자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이었으나 외국인 투자청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의 결과로 중국, 싱가포르, 한국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과 터키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음

□ 투자 유치 제도 강화

- 쿠웨이트 정부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소극적이었으나, 걸프전 후 전비부담 증가, 유가하락의 재정적자 누적 및 이라크, 요르단, 이란 등 인근 국가와 무역관계가 단절의 대책으로 공기업 민영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적극 시행
- 이에 쿠웨이트 정부는 지난 1999년 6월 국왕칙령으로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하여 2001년 5월 발효하여 시행 중이며, 2014년 KDIPA(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 쿠웨이트 투자진흥청) 설립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적극 활성화 추진



□ 외국인 투자유치법의 주요 내용

- 모든 외국인 투자는 쿠웨이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 경제개발 계획과 사회 발전 방향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

기존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법인 설립 시 외국인 투자 지분을 최대 49%로 제한 ▪ 기존 외국인 투자법이 존재하였으나 외국 투자기업에 불리하게 법규를 소급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기업 100% 단독투자 허용 ▪ 법인 소득세 15% 이하 및 최대 10년간 면제 ▪ 회사 설립에 필요한 과실 송금 완전 보장 ▪ 투자 기반 시설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2001년 기준	2013년 기준

□ 향후 투자환경 전망

- 쿠웨이트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법 시행과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외국 기업의 쿠웨이트에서 투자 승인과 경제활동에는 많은 제약이 상존하는 상황
- 향후 쿠웨이트는 자국의 핵심 산업기반인 원유 개발 및 석유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원개발 및 석유산업 이외 분야는 산업다각화와 고용 확대를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정책을 추진할 전망

□ 투자 인센티브 제도

□ 조세 인센티브

-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 면제
 - 투자 후 최대 10년간 외국투자기업체 법인세 면제
- 외국 투자기업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전부 또는 일부 면제
 - 건설 및 산업개발에 필요한 기계류, 장비, 부품
 - 생산 목적에 필요한 원료, 반가공품, 포장재료, 그 밖의 다른 재료들



□ 금융 인센티브

- 외국인 투자기업의 과실송금 및 투자자본의 이전 완전보장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지 은행차입 지원 인센티브는 부재

□ 입지 인센티브

- 저렴한 요율로 산업공단 배정
 - 공장 설립은 국가공단을 관장하고 있는 쿠웨이트 산업청이 입주공단을 배정하고 있으며, 현재 쿠웨이트 제조업체는 산업공단에 입주

□ 기타 인센티브

- 외국인투자 투자 지분을 철폐 (100%허용)
-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유화 금지
- 외국투자기업에 불리한 법규의 소급적용 금지
- 외국투자기업의 쿠웨이트인 고용의무 완화
-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인정

□ 투자 장려 및 제한 분야

□ 투자 장려 분야

- 사회 기반 시설 프로젝트(물, 전력, 폐수처리 또는 통신시설)
- 투자 및 외환 회사, 보험회사, 정보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
- 병원 및 제약, 항공·육상·해상 화물
- 관광업, 호텔 및 엔터테인먼트, 주택 계획 및 도시 개발



□ 투자 제한 분야

- 석유개발 또는 석유 및 가스 생산과 관련된 투자는 외국인 투자가 제한

8. 투지 입지 여건

□ 긍정적 요인

- 과거 중동 교역의 중심지로서 현지인들의 비즈니스 마인드 양호
 - 지정학적으로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중동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중동 교역의 교두보
 - 1990년 이라크 전쟁 후 중동 중계무역 중심지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두바이로 넘어가면서 위상이 약화된 상황
-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 전기와 수도 등 간접비용이 낮음
 - 인도, 이집트, 방글라데시 등 제3국인들이 많아 저임금 노동력의 활용이 가능하며, 전기와 수도료 등 간접비용 부담이 매우 낮음
- 과거 영국식민지 및 다수의 외국인 거주 국가로 영어 의사소통 원활
 - 쿠웨이트인 뿐 아니라 제 3국 외국인 등 영어 의사소통이 원활
-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 현지 진출 한국 건설업체 및 승용차 등의 수출과 K-POP, 한국 드라마와 같은 한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 2015년 3월 대통령 중동 순방으로 한국과 쿠웨이트 양국의 경제협력 심화

□ 부정적 요인

- 자국 자본이 풍부하여 외국 자본유치에 대한 잠재 수요가 크지 않음
 - 쿠웨이트 정부는 약 3,000억 달러의 해외 자산을 보유
- 자국민 보호 정책의 정도가 심함
 - 외국인 100% 지분에 의한 단독 법인 설립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실질



- 적으로는 승인 제한되고 있는 상황
- 에이전트 및 스폰서 제도 시행으로 외국기업의 거래비용 부담 증가

- 문화, 관습, 언어, 기후 등의 현격한 차이
 - 언어 및 사회 관습이 한국과 차이가 크고, 한여름 50도가 넘는 고온 기후로 노동 조건이 매우 취약
 - 라마단 등 종교 휴일로 노동 생산성이 낮고, 신의 뜻대로라는 의미의 '인샬라'식의 마인드로 업무의 효율성이 낮음

- 제3국인 노동자들의 낮은 생산성
 - 쿠웨이트 노동인력의 대부분은 인도, 이집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외국인 노동인력으로 언어, 문화 등의 이질감으로 노동 생산성이 낮음

- 관공서 등 공공기관의 행정 서비스 취약
 - 각종 인허가 및 행정업무 처리 절차가 불투명하고 장기간 소요



III. 비즈니스 참고사항

1. 역사 및 문화적 금기사항

- 쿠웨이트는 1961년 독립하여 국가의 역사가 매우 짧은 반면, 1990년 이라크 침공으로 전쟁의 피해를 경험하여 전쟁에 대한 피해의식이 매우 큼
- 쿠웨이트는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았던 이유로 다른 아랍국가에 상대적으로 매우 친미적인 성향을 보유하고 있으며, 쿠웨이트도 아랍국가의 일원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문화적, 종교적 영향으로 술, 도박, 매춘 등이 금지 되어 있으므로 입국 시 주류와 풍기를 문란케 하는 영상물 등은 반입이 허용되지 않음. 음주 시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되며 라마단 기간 중에 야외에서 음식물 섭취 시 벌금 형에 처함
- 음식물은 종교적 금기에 따라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며 반입도 금지되며, 오징어 등 비늘 없는 생선류는 식용하지 않음

2. 비즈니스 에티켓

- 약속
 - 쿠웨이트 정부부처 및 공공 기관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현지인들은 약속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여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음
 - 인샬라(신의 뜻대로)를 자주 언급하는 데 세상사 약속도 신의 뜻에 따라 조금 늦을 수도 있다고 생각. 종교적인 영향이 강해 최대한 신의와 성실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



□ 식사

- 현지인들의 식사는 주로 고기류 (특히 양고기), 빵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디저트로 단 음식을 선호
 - 특히 대추야자 열매는 9~ 10월에 수확을 하는데 당도가 아주 높으며, 라마단 기간 중 식사 전에 즐겨 먹음
- 돼지고기와 비늘이 없는 생선 등은 먹지 않음. 일식은 일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현지인들은 생선회, 초밥 등 날 음식보다 익힌 고기를 선호함
- 쿠웨이트 회사의 실질적 마케팅 담당 직원은 대부분 인도인이나 이집트인인 경우가 많음. 이들은 인도, 이집트의 고유 음식 문화를 따름
 - 인도인은 채식주의자가 많고, 현지 일반인들은 양고기, 닭고기, 생선을 선호

□ 선물

- 한국 인삼제품에 대한 현지인들의 선호도는 매우 높는데, 인삼 제품의 효능에 대해 과신하는 경향이 있음
- 술은 금기시되므로 선물로 피해야 하며, 화장품, 건강용품, 전통 공예품 등이 유용

□ 인사

- 쿠웨이트인들간 남자라도 친한 관계는 포옹과 볼 키스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외국인과 쿠웨이트인들이 인사 할 때는 악수가 일반적임

□ 복장

- 쿠웨이트인 대부분이 전통 아랍 복식을 착용함. 인도인, 이집트인 등 외국인들은 서구식 복식을 착용함



3. 상담 및 거래시 유의사항

- 쿠웨이트는 이슬람 국가로 이슬람 교리가 사회와 경제 전반에 적용. 바이어와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 이슬람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 한국이나 서구식 관행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양
- 쿠웨이트 기업들의 실무는 인도, 이집트 등 제3국인들이 담당하나, 최종 의사결정은 쿠웨이트 사장이 하는 구조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이 특징
- 거래는 L/C거래가 일반적이며 그 소규모 거래는 T/T도 일반화되어 있으며, 쿠웨이트는 상관습은 에이전트 제도가 보편적이고, 에이전트 수수료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행
- 바이어 오더시 FOB 보다는 CIF 조건을 일반적으로 선호하며 수입관세는 통상 5%가 적용됨
- 최근 쿠웨이트 대표 국제항구인 Shuwaikh Port 및 Shuwaiba Port의 통관 기준에 대한 혼선으로 도착 물량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유의하는 것이 필요함
- 휴가 등으로 담당자가 부재할 경우 다른 직원이 업무를 대행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담당자 파악이 매우 중요



※ 재미있는 쿠웨이트 사회 엿보기 ※

□ 은 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쿠웨이트인

- 쿠웨이트인은 출생 후 취업시까지 매달 약 200불 정도를 수령
- 유치원에서 국립대학까지 교육비 무료이며, 해외 유학시 교육비 및 왕복 항공료와 매월 2,000불 용돈 지급
- 국가가 자국민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지원하며, 치과치료 비용도 무상
- 결혼시 지참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정부가 지참금을 직접 무상 지원
- 현대 국가에서 보편적인 조세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소득세등 세금이 없고, 쿠웨이트 시내 전화요금도 무료
- 쿠웨이트 정부는 정부 기념일 또는 재정흑자가 큰 경우에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
- 쿠웨이트는 석유자원 고갈을 대비하여 석유 수출수입의 10%를 매년 적립하여 차세대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고, 현재 쿠웨이트 정부의 누적 자산은 약 3,000억 달러 규모

□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나라, 쿠웨이트

- 6월~10월 기온이 40~50도를 오르내리며, 여름 최고 기온은 55도 이상
- 사막의 모래 폭풍과 50도를 넘는 무더위가 겹치면 그야말로 인간은 자연 앞에 무기력한 존재임을 실감하게 되며, 이 시기에 쿠웨이트 자국민들은 유럽 등으로 3~4주 간 여름휴가를 떠남
- 이 기간 중 사막에서 유일하게 결실을 맺는 식물은 '대추야자'로 더위가 한 풀 꺾이는 9~10월에 수확되어 라마단 기간 중 금식으로 허약해진 기력을 보충하는 간식으로 애용



□ 땅만 파면 석유가 평평

- 쿠웨이트는 유전은 육상 유전으로 석유채굴 원가가 낮아 수익성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
- 쿠웨이트 석유 채굴 원가는 배럴당 약 6달러 정도로 국제 유가 수준이 100달러인 경우 배럴당 94달러의 순익이 발생

□ 유럽 문화에 대한 동경, 미국에 대한 의존 심화

- 과거 영국 식민지 등으로 유럽문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라크전 이후 정치와 경제 전반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대부분의 정부 고위직 및 기업의 경영진은 미국 및 영국 등에서 유학 경험이 있으며, 영어에 능통

□ 와스타 (Wasta) 문화

- 와스타는 아랍어로 관계라는 뜻으로 인맥 또는 영향력으로 해석되며 쿠웨이트는 중동의 국가 중 중동 국가 와스타가 가장 심한 국가로 인식
- 특히 정부관공서 행정 처리, 공사 발주, 구직, 심지어 각종대회 입상 등에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현지에서는 와스타를 개인의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
- 이러한 와스타 관행은 과거 척박한 사막 환경에서 자기 부족의 생존을 위해 부족 내 유대관계가 중요시 되면서 형성

□ 북부지역 개발을 통한 걸프지역 금융, 교역의 중심지 도약 계획

- 쿠웨이트 국가개발 계획인 'New Kuwait 2035' Plan은 이라크·사우디 등과 인접한 걸프 북부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오일, 가스분야 중심의 산업에서 탈피하고 향후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한 걸프 북부의 무역·금융

을 중심지가 되고자 하는 국가 비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쿠웨이트 북부개발의 일환으로 압달리야 지역 물류기지 건설, 북부에 위치한 최대 면적의 부비안섬에 무바라크 알 카비르 항구 건설, 수비아 만에 위치한 실크시티 프로젝트,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자베르 코즈웨이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쿠웨이트의 북부에 위치할 신도시 'The City of Silk'에 건립을 추진하는 'Mubarak Tower' 빌딩은 1,001m로 두바이의 버즈 두바이 빌딩(808m)을 의식한 프로젝트 계획
- 인류 문명의 발상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구, 쿠웨이트 북부의 슈비아(Subiya)만에 위치하게 될 'The City of Silk'는 전체 공사비 860억 달러 투입하여 250층, 1,001m 높이의 'Mubarak Tower'를 위시한 금융, 위락, 문화 및 환경 등 4개 주요 단지를 25년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

<The City of Silk 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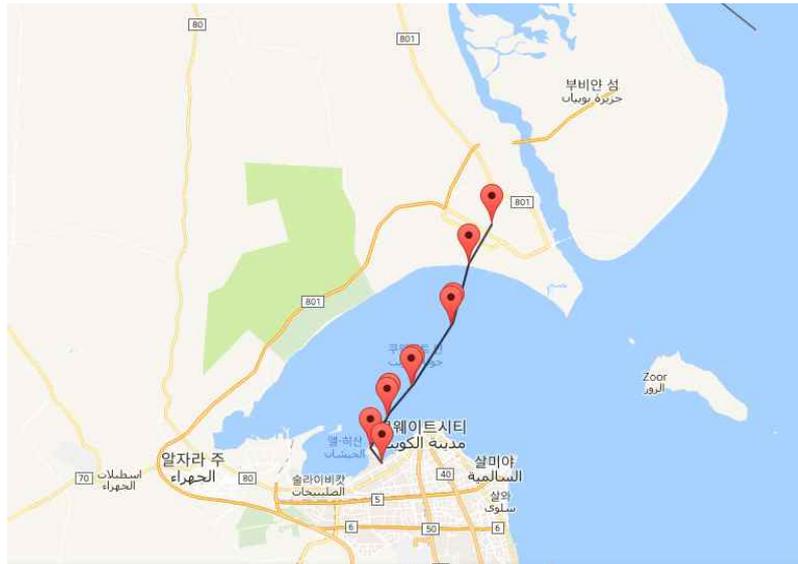


- 두바이의 'Dubai Waterfront', 'Business Bay'를 합친 규모를 증가하여 세계 최대의 해안도시가 될 것이며 국제공항, 항구, 고속도로 등이 건설되고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되면 중동의 새로운 허브로 자리매김할 전망



- 이 프로젝트는 추진되고 있으며, 쿠웨이트 시티와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36km의 현수교 자베르 코즈웨이를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건설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완공 예정임

<자베르 코즈웨이>



- 자베르 코즈웨이가 완공된다면, 부비안 섬을 포함한 북부지역 개발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
- 두바이와 다르게 막대한 석유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쿠웨이트는 과거에 누렸던 중동 교역 중심국가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야심을 표출



www.kotra.or.kr